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69~87, 2023. 5. https://doi.org/10.17279/jkagee.2023.31.2.69

# 동물 문제에 대한 어린이 인식 유형 연구*

김선희** · 김혜진***

# Study on the Perception Type of Animal Issues in Children*

Seon-Hee Kim** · Hye-Jin Kim***

**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동물 문제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의 인식 양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유형 1)은 인간과 동물의 영역을 구분하며, 동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손익을 중요하게 여겼다. 생태 기반 공존지향형(유형 2)은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사는 구성원이자 대등한 행위자로 인식하며, 동물 문제가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연결망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하였다.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유형 3)은 동물에 대한 애정과 선호도에 따라 동물 문제를 이해하므로 특정 동물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민 기반 생명존중형(유형 4)은 강한 연민을 바탕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지리교육이 어린이의 삶터에서 동물의 존재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삶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동물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등지리교육은 어린이가 동물 문제 개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삶과 동물 문제를 관계적으로 사고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동물 문제, 어린이, 인간 너머의 지리, 초등지리교육, Q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ildren's perceptions of animal issues occurring in various spaces using the Q methodology. As a result, there were four types. The Human-centered Boundary-building (Type 1) distinguishes the domain of humans and animals, and values the gains and losses that animals have on humans in understanding animal issues. The Ecological-based Coexistence-oriented (Type 2) recognizes animals as equal actors living with humans, and understand that animal issues arise in the ecological network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e Self-centered Differential Treatment (type 3) are sensitive to specific animal issues because they understand animal issues based on their affection and preference for some animals. The Compassion-based Life-respecting (Type 4) wants to protect animals and actively engage in improving animal issues based on strong compa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pay attention to the existential meaning of animals in children's lives and deal with some animal issues in their lives. It also does helping children participate in improving animal issues and think relationally about life and animal issues.

**Key words:** animal issues, children, more-than-human geographies, elementary geographical education, Q methodology

* 본 논문은 김선희(2023)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 서울가양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Kayang Elementary School), sunniyam21@gmail.com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Elementa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jkim@knue.ac.kr

www.kci.go.kr

# I. 서론

동물은 오랫동안 여러 영역에서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온 살아있는 비인간이다. 맹수는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였으며, 일부 사육이 가능한 동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노동력 등을 제공했다. 이를 넘어 때로는 인간과 우정을 나누는 동물도 있었다. 인간과 동물은 지리적 환경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런 관계는 변화했다. 인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동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동물을 지배하며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동물을 도구적으로 보는 관점이 만연해지고, 동물권과 동물윤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인간이 동물이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것이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 동물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동물 문제는 더 첨예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역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유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적 관점으로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타개하고 인간과 동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리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생태 환경에서 동물 행위자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동물 문제는 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의 출현은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이런 관점으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지리학을 인간의 공간에서 인간-비인간의 공간으로 그 학문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김숙진, 2020; 김준수, 2018; 이혁재, 2017; 황진태, 2018; 황진태 외, 2019; 최명애, 2018, 2020; Choi, 2016). 지리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지리교육은 학습자가 공간적 토대 위에서 인간-비인간-환경의 관계를 기반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지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터이므로 지리교육은 비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아야 한다. 즉 지리교육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초등지리교육에서는 그 특성상 어린이가 동물과 그에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물과 그에 대한 인식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초등지리교육에 적용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유아기부터 동물에 대한 호감을 느끼며 동물에 대해 친숙한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많이 이용하며,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곤 한다. 또한 어린이는 동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신과 대등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은 아동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푸른 사자 와니니」, 「마당을 나온 암탉」, 「샬롯의 거미줄」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동문학에는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이 많다. 어린이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에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면서 감동과 교훈을 얻는다. 어린이는 반려동물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반려동물을 대하고 돌본다(Robin and Ten, 1985; Morrow, 1998: 218 재인용).

그동안 동물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을 다룬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있었다. 대표적 연구는 아동심리치료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어린이가 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자신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특징을 활용해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동물매개활동(Animal-Assisted Activities), 동물매개교육(Animal-Assisted Education)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왔다(강원국·김옥진, 2020; 김두경 외, 2020; 김양순, 2005; 김원 외, 2013; 심혜미·우주영, 2020; 오가영·강원국, 2021; 이시종·김옥진, 2021; 이준철, 2022; 정현수·오가영, 2015; 홍주연·윤지현, 2009). 이러한 연구는 동물과의 교감이 아동의 인지 발달 및 사회성 발달, 정서 함양 등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동물을 정서적으로 친밀한 존재로 인식하는 특성에 기초해 동물 매개 활동이나 동물 매

www.kci.go.kr

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강주연, 2022; 박현아, 2019; 이시종 외, 2019; 이민자, 2018; 임소영, 2017; 정여름, 2019; 최두혁, 2016). 이러한 분야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교과교육 내 초등환경교육에서 어린이의 동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수룡 외(2021)은 초등학생들이 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후,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어린이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어린이는 윤리적 배려 대상을 동물-식물-무생물 순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어린이가 동물을 가장 우선적인 환경적 배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경환(2006)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에 대한 지식적·심리적·반(反)도구적·감정이입적 태도를 측정하여 동물에 대한 태도와 환경친화적 행동[1] 의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어린이-동물 관계에서 어린이의 우호적 인식이 어린이-환경의 관계에도 이어지므로 동물이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황선미(2011)는 생태주의, 생물다양성, 동물보호에 관한 담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에 적용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환경에 대한 태도 및 관심을 향상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동물이 어린이의 환경 인식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매개이며 동물을 소재로 한 생태주의적·자연친화적 접근이 초등학생에게 환경교육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혔다.

이상에 기초하여 볼 때 동물은 어린이에게 가깝고 친밀한 존재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 문제는 어린이에게 인간-동물-환경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하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게 하여 동물 문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자로서 인간 행위를 성찰케 한다. 즉 동물과 동물 문제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초등지리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다.

어린이가 동물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애정이 동물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발현되는가? 어린이는 동물이 자기 삶과 지리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어린이들의 인식과 의지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초등지리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러한 물음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초적 논의이자 새로운 초등지리교육의 방향에 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얽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동물 문제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인식 유형별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지리교육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Ⅱ. 동물 문제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 설계

### 1. 동물 문제 선정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적 측면에서 각각의 행위성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동물 문제를 해석한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치적·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인간과 다른 비인간동물을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동물은 같은 공간과 환경을 공유하며 살아가기에 여러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담론이 다양하기에 때때로 동물에 관련한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problem)를 넘어서 사회적 쟁점(issue)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이나 동물이 같은 지리적 환경을 체현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이 동물의 지리, 이를테면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기, 자유롭게 이동하기, 건강하게 살기 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동물 문제(animal issues)'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동물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인간-동물의 관계, 동물에 대한 태도 및 동물의 행위성에 대한 인식, 관련한 행위 실천 의지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이에 연구자는 스케일과 어린이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다룰 동물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여러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동물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동물 문제를 수집하고 로컬, 국가, 세계 및 지구 스케일에 따라 분류하였다.

www.kci.go.kr

그 결과 로컬 스케일의 동물 문제로 도심 멧돼지 출몰 문제와 도시 길고양이 문제를, 국가 스케일의 동물 문제는 반달가슴곰 개체 수 증가 문제와 고라니 로드킬 문제, 세계 및 지구 스케일의 동물 문제는 꿀벌의 벌집군집붕괴현상 및 박쥐와 코로나19 문제를 선정하였다.[2] 두 번째로 어린이가 관심을 가지는 동물 문제를 선정하고자 국내 어린이 신문 3종에서 최근 3년간(2019.01.~2022.05.) 발행된 동물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의 최근 관심사와 흥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 수준 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윤리적 소비(동물성 먹거리와 기후변화, 동물성 의류 등)와 동물복지(전시동물, 가축동물),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이의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동물 문제로 동물 학대, 유기동물, 멸종위기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로드킬 및 버드스트라이크, 공장형 축산, 코로나와 박쥐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이 골고루 나타났다. 관심있는 동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우선 선정한 동물 문제 중에서 어린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있는 도시 길고양이, 고라니 로드킬, 박쥐와 코로나19 문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동물 학대 및 동물복지 관련 내용으로 전시/공연 돌고래 문제, 윤리적 소비 관련 내용으로 먹거리 소와 공장식축산 문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3] 최종 선정한 동물 문제는 표 1과 같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에 관한 연구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 가치, 신념, 태도 등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Q방법론은 전통적인 R방법론이나 해석학적 연구 또는 현상학적 연구로 분류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주관성을 표현하고 밝히게 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진술문을 읽어보고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나열하게 된다. 이 과정은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비작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흥규, 2008: 10). 그러한 점에서 Q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자작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둘째, 가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김흥규, 2008: 11-21). 논리적으로 가설을 만들고 그것을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연역적 연구가 아니라 설명이나 해석을 발견하고 추론하는 후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연구자가 관찰한 사실을 설명하며 가설로 향하는 추론적 과정이다(김헌수·원유미, 2000: 10). 이 연구 방법은 규칙성을 찾거나 일반화를 시도하지 않고 관찰한 현상의 특성에 관심을 둔다. 셋째, Q방법론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상호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이 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방법으로서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연구 방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질문 형태가 폐쇄적인 Q표본을 사용하고 주관성을 측정하는 데 요인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경험주의적 방법론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자 두 방법의 연결체로서 의의가 있는 연구 방법이다(김순은, 2010: 24). 본 연구에서는 이러

표 1. 선정한 동물 문제

| 동물 문제 | 특성 |
|---|---|
| 도시 길고양이 | 도시 내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와 고양이의 정주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 |
| 고라니 로드킬 | 고라니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 |
| 전시/공연 돌고래 | 인간의 이익 창출과 돌고래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가 상충하는 문제 |
| 박쥐와 코로나19 | 코로나19를 매개로 박쥐와 인간의 관계 및 건강하게 살 권리에 관한 문제 |
| 먹거리 소와 공장식축산 | 공장식축산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 지구 환경의 건강이 불균형 상태가 되는 문제 |

www.kci.go.kr

한 Q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동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명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3. 연구 절차

### 1) Q모집단 구성 및 Q표본 선정

Q모집단은 연구를 위해 수집한 항목의 집합체(김홍규, 2008: 89)로,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동물 문제에 관한 진술문을 가리킨다. 연구자는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Q모집단(진술문 총 509개)을 구성하였다. 먼저 문헌분석 과정에서 동물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류학·지리학·지리교육 및 환경교육 선행연구(김병연·조철기, 2020; 김병연·조철기, 2021; 박순열, 2010; 윤창호, 2021; 이혁재, 2017; 전의령, 2017; 최명애, 2018; 조철기, 2018; 채유정, 2018; 하경환, 2006; 홍서영, 2020; Buller, 2013; Wolch, 2002), 어린이 신문 보도 자료 126건 및 어린이 주간지 발행 문건 7건, 어린이 도서 2권 및 일반 도서 2권, 일반 신문 보도자료 70건을 분석하여 진술문 412개를 수집하였다. 또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49명을 대상으로 동물 문제에 대한 경험과 인식, 이해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술문 37개를 수집하였다.[4] 이후 설문지를 통해 경험과 의견이 서로 다른 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물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동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응답으로부터 진술문 59개를 수집하였다.

Q표본은 Q모집단에서 추출한 항목으로 정선된 진술문 세트를 가리킨다.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Q모집단을 4차례에 걸쳐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중복된 표현을 삭제 및 통합한 후, 범주화하여 하위개념을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물 및 동물 문제에 대한 긍정적 진술문과 부정적 진술문의 개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술문 35개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진술문 35개를 최종 Q표본으로 확정하였다. Q표본은 표 2와 같이 3개 범주와 15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다.

### 2) P표본 선정 및 Q분류

P표본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를 가리킨다. 본 연구는 고차적 사고가 발달하여 동물 문제와 관련된 진술문을 이해할 수 있는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하기 위해 동물에 관한 경험, 관심과 흥미 수준,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P표본은 서울 ○○구, △△구, □□구 소재 초등학교 내 5, 6학년 학생 중 선정된 34명의 어린이다. 본래 Q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연구참여자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김홍규, 2008: 113)하다. 대개 30~50명 내외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에 참여할 학급을 모집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등이 다양한 학생들을 참여 후보자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참여 후보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4명을 P표본으로 확정하였다.

Q분류는 참여자가 Q표본 진술문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Q분류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Q분류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진술문에 등장하는 동물 문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참여자의 경험,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동물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도왔다. 연구자는 Q표본을 진술문 카드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평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진술문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분류표에 배치하게 하는 강제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참여자가 진술문 카드 35개를 하나씩 읽어보며 동의·비동의·중립 그룹로 삼분하고, 동의·비동의·중립 그룹에 분류된 카드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삼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그림 1과 같은 분류표에 배치하게 하였다. 모든 진술문 카드를 분류표에 배치한 후 양극단으로 분류한 진술문에 대해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초등학생인 연구참여자가 이유를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분류표 하단에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www.kci.go.kr

표 2. 최종 Q표본(진술문)

| 범주화 | 하위개념 | | 진술문 |
|---|---|---|---|
| 동물 문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 | 동물 문제의 원인 | 인간 | 13. 길고양이가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길에서 사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 | | 9. 코로나19처럼 동물에 의한 감염병이 늘어난 것은 인간이 박쥐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
| | | 동물 | 5. 소는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의 트림과 방귀 및 배설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
| | 인간-동물의 관계 | 동물→인간 | 10. 돌고래가 잡히거나 바다 쓰레기로 고통받는 문제는 나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
| | | 인간→동물 | 17.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의 생활 터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인간↔동물 | 12. 인간, 동물, 지구는 모든 분야에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끼친다. |
| | 동물-공간의 관계 | 도시 | 34. 도시는 인간과 많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
| | | 국가 | 32. 국토개발은 동물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 세계·다중 | 35.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 | 대처 방식 | 직접적 변화 | 8.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기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
| | | 간접적 변화 | 14.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를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 | 심각성 | | 33. 내가 어릴 때보다 동물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진 않다. |
| 동물 문제에 대한 가치·태도 | 평소 동물에 대한 태도 | 소극적 | 1. 도시의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을 무섭고 불안하게 한다. |
| | | 도구적 | 7.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이다. |
| | | 인간적 | 4. 돌고래는 나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이다. |
| | | | 27. 박쥐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
| | | 생태적 | 3. 박쥐는 수백 가지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 인간이 박쥐를 보호하기 보다 멀리해야 한다. |
| | 환경 윤리적 태도 | 인간 중심 | 16. 돌고래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돌고래 공연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
| | | | 11. 공장식축산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소고기를 먹게 해주므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
| | | 생명 중심 | 2. 고라니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고 할 수 없다. |
| | 공존 | | 19. 길고양이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이다. |
| | | | 15. 박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야생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한 일이다. |
| | 동물권 | | 6.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같이 모두 보호할 순 없다. |
| | | | 29. 소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동물일 뿐이다. |
| | 사회적 행위자 | | 25. 도시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고려해야 한다. |
| | | | 18. 문제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 중요하다. |
| 동물 문제에 대한 실천 의지·행위 | 의지 없음 | | 20. 고라니가 차도에 뛰어들어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사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
| | | | 30.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
| | 경제적 행동 | | 22. 나는 돌고래의 자유와 이동을 제한하는 수족관에 가지 않을 것이다. |
| | | | 23. 나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소고기, 우유, 유제품 등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 | 신체적 행동 | | 31.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므로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 | | | 24. 나는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할 것이다. |
| | 설득적 행동 | | 21. 박쥐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 | | | 26.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주변에 알리고 싶다. |
| | 학습적 행동 | | 28.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워보고 싶다. |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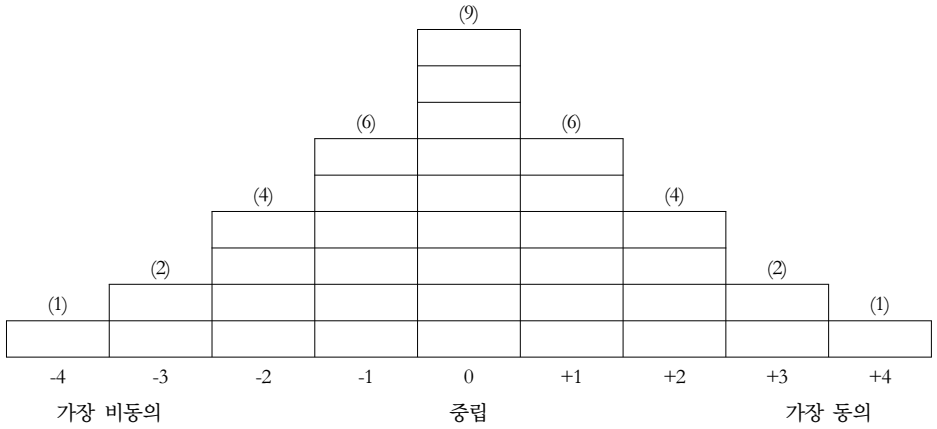


그림 1. Q표본 분류표

### 3) 자료 분석 및 후속 면담

34명의 Q분류 결과물을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부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에 이르기까지 1~9점으로 환산하여 QUANL 프로그램으로 주요인분석과 배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어린이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이때 각 인식 유형별로 표준점수(Z-score)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진술문에 주목하여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의 이름을 명명하였다(김흥규, 2008: 164).

유형화가 끝난 후 유형별로 전형성이 가장 높은 대표자 2~3명과 후속 면담을 진행하였다. 후속 면담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줌(zoom)을 통한 일대일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배치한 Q표본 분류표를 함께 보며 각 양극단에 분류한 카드를 확인하고 그렇게 분류한 까닭을 질문하고 답하였다. 또 일부 진술문의 배치가 다른 카드와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하였다. 이렇게 Q표본 진술문에 대한 반응과 후속 면담을 통해 확인한 어린이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각 인식 유형의 특성을 밝혔다.

## Ⅲ.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분석 결과

### 1.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유형 추출 및 공통의견 분석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표본 34명의 Q분류 결과물을 요인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요인은 아이겐 값이 16.6863, 2 요인은 2.6034, 3 요인은 2.1370, 4 요인은 1.539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이겐 값은 1.0 이상이면 공통된 요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므로 도출된 각 유형은 적합한 설명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설명 변량은 67.55%로, 본 연구에서 추출한 4가지 유형이 67.55%의 설명력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표 3).

동물 문제에 대한 어린이 인식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는 표 4와 같이 0.266에서 0.762로 나타났다. 유형 1과 나머지 3개 유형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491, 0.266, 0.338로 다소 낮았다. 유형 2와 유형 4는 그 상관관계 계수가 0.762로 다른 유형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적재값으로서 요인가중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해당 유형을 형성하고 설명하는데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 이상일 경우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요인가중치가 높은

표 3. 동물 문제 인식 유형별 아이겐 값과 설명변량

| 구분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
| 아이겐 값 | 16.6863 | 2.6034 | 2.1370 | 1.5390 |
| 변량(%) | 49.08 | 7.66 | 6.29 | 4.53 |
| 누적 변량(%) | 49.08 | 56.73 | 63.02 | 67.55 |

www.kci.go.kr

참여자일수록 각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참여자를 의미한다(전희락·남궁영, 2022: 103).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유형별 P표본의 절반 이상이 1 이상의 요인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어 각 유형의 설명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4가지 유형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진술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어린이들은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는 인간과 많은 동물이 함께

표 4. 동물 문제 인식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 유형 | 1 | 2 | 3 | 4 |
|---|---|---|---|---|
| 1 | 1.000 | | | |
| 2 | .491 | 1.000 | | |
| 3 | .266 | .534 | 1.000 | |
| 4 | .338 | .762 | .522 | 1.000 |

표 5. 동물 문제 인식 유형별 P표본의 요인가중치

| 유형 1(4명) | | 유형 2(18명) | | 유형 3(4명) | | 유형 4(8명) | |
|---|---|---|---|---|---|---|---|
| 참여자 | 요인가중치 | 참여자 | 요인가중치 | 참여자 | 요인가중치 | 참여자 | 요인가중치 |
| P15 | 2.9278 | P05 | 1.7841 | P25 | 2.6668 | P21 | 1.6331 |
| P10 | 1.1140 | P27 | 1.6679 | P18 | 1.7851 | P12 | 1.5258 |
| P26 | 0.9452 | P32 | 1.5806 | P09 | 0.8866 | P23 | 1.3328 |
| P11 | 0.7066 | P29 | 1.3320 | P01 | 0.6245 | P28 | 1.2069 |
| | | P20 | 1.2557 | | | P02 | 1.0207 |
| | | P06 | 1.2452 | | | P04 | 1.0125 |
| | | P30 | 1.2225 | | | P17 | 0.6592 |
| | | P22 | 1.1790 | | | P19 | 0.6288 |
| | | P07 | 1.1742 | | | | |
| | | P16 | 1.1717 | | | | |
| | | P31 | 1.0634 | | | | |
| | | P34 | 0.9503 | | | | |
| | | P24 | 0.9226 | | | | |
| | | P13 | 0.9078 | | | | |
| | | P33 | 0.8983 | | | | |
| | | P08 | 0.8462 | | | | |
| | | P13 | 0.7787 | | | | |
| | | P03 | 0.7169 | | | | |

표 6. 유형 공통 합의 진술문

| 번호 | 진술문 | 평균 z-score |
|---|---|---|
| 35 |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1.87 |
| 8 |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 1.21 |
| 34 | 도시는 인간과 많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 1.00 |

www.kci.go.kr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진술문에 동의를 나타내었다. 4가지 유형 모두 동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태통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도시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터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유형별 특성

### 1) 유형 1: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

유형 1과 같이 인식하는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대할 때 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손익을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문제에 처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인간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과 삶터를 공유하려는 의지나 동물 문제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미약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에 이 유형을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1 어린이가 진술문에 보인 반응(표 7) 및 후속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의 어린이는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동물-지구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며 동물 문제의 세계적·다중스케일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진술문 12, 35). 이들은 이러한 동물 문제를 쓰레기 문제, 멸종위기 동물 문제 등 환경 문제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진술문 33). 가치·태도 측면에서 동물에 대해 소극적이고 도구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길고양이를 도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으며 도시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길고양이를 고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진술문 25)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진술문6), 문제에 처한 동물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같이 여기지 않는 모습(진술문 18)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어린이는 동물 문제에 대한 행위 실천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21번 진술문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나듯이 동물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리는 설득적 행위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 후속 면담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직접 관련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한편 유형 1 어린이는 후속 면담에서 동물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자신을 동물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유형의 어린이가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으로 불린다고 해서 무조건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이나 부속물로 인식하거나 동물 문제에 대해 무조적 인간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유형의 어린이도 동물을 존중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려면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이

표 7. 유형 1의 강한 동의/비동의 진술문(z-score≥±1)

| 번호 | 동의 진술문 | z-score |
|---|---|---|
| 35 |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2.27 |
| 8 |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 1.62 |
| 3 | 박쥐는 수백 가지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이 박쥐를 보호하기보다 멀리해야 한다. | 1.55 |
| 12 | 인간, 동물, 지구는 모든 분야에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끼친다. | 1.16 |
| 번호 | 비동의 진술문 | z-score |
| 11 | 공장식축산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소고기를 먹게 해주므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 -1.12 |
| 27 | 박쥐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 -1.20 |
| 25 | 도시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고려해야 한다. | -1.24 |
| 21 | 박쥐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1.45 |
| 16 | 돌고래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돌고래 공연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 -1.68 |
| 33 | 내가 어릴 때보다 동물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진 않다. | -2.51 |

www.kci.go.kr

동물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진술문 8)고 생각하는 점, 공장식축산을 부정적으로 평가(진술문 11)하거나 돌고래 공연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점(진술문 16), 후속 면담에서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서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유형 2: 생태 기반 공존지향형

유형 2는 동물 문제가 인간-동물의 생태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동물을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며 인간과 동물을 대등하게 존중하고자 하였다. 이 어린이들은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자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행위자로 대했다. 이들은 동물 문제를 개선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유형 2를 '생태 기반 공존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표 8).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유형 2 어린이는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동물-지구가 생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진술문 12). 이들은 동물 문제의 다중스케일적 성격을 이해하면서도(진술문 35), 국가스케일에서 국토개발이 인간과 동물의 지리적 공존에 물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동물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진술문 32). 이는 고라니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생태통로를 만드는 데 동의하는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진술문 8). 또한 박쥐 관련 진술문에 대한 반응(진술문 9)과 후속 면담에서 동물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 동물보다 인간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인간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가치·태도 측면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동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길고양이나 박쥐 등 다양한 동물을 도구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반대했다(진술문 7, 27). 후속 면담에서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두고 인간과 박쥐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생태중심적인 환경윤리의식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전파되는데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면서도(진술문 9) 코로나19라는 네트워크 하에 인간과 박쥐를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된다고

표 8. 유형 2의 강한 동의/비동의 진술문(z-score≥±1)

| 번호 | 동의 진술문 | z-score |
|---|---|---|
| 12 | 인간, 동물, 지구는 모든 분야에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끼친다. | 1.77 |
| 18 | 문제에 처한 동물을 돕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 중요하다. | 1.70 |
| 35 |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1.70 |
| 24 | 나는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할 것이다. | 1.48 |
| 9 | 코로나19처럼 동물에 의한 감염병이 늘어난 것은 인간이 박쥐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 1.25 |
| 32 | 국토개발은 동물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 1.15 |
| 8 |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 1.01 |
| 번호 | 비동의 진술문 | z-score |
| 20 | 고라니가 차도에 뛰어들어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사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 -1.02 |
| 27 | 박쥐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 -1.13 |
| 7 |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이다. | -1.18 |
| 29 | 소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동물일 뿐이다. | -1.30 |
| 2 | 고라니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고 할 수 없다. | -1.35 |
| 33 | 내가 어릴 때보다 동물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진 않다. | -1.52 |
| 6 |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같이 모두 보호할 순 없다. | -1.58 |

www.kci.go.kr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해결하려면 인간이 박쥐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진술문 27). 이를 통해 유형 2의 어린이는 인간을 동물과 생태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자이자 동물에 대한 관계적 윤리를 실천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문제에 처한 동물과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모두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자 행위자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진술문 18).

유형 2에 속하는 어린이의 이러한 가치·태도는 동물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로 이어졌다. 특히 고라니의 로드킬 문제처럼 동물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진술문 20). 유형 2의 어린이는 생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물 문제를 이해하므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행동이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동물이 잘 살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행동에 대한 의지가 다양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었다(진술문 24). 후속 면담에서 이들은 학교 수업에서 설득적·학습적 행동을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스스로 유의미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생태적 네트워크 인식은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유형을 가진 어린이들은 동물 문제를 다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3) 유형 3: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

유형 3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사적인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좋아하지 않는 동물에는 배타적이었으며, 유사한 문제라도 관련된 동물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동물 문제의 다중스케일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일상생활 영역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 문제에 처한 동물을 돕고자 하지만 자신의 이해(利害)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의 특성은 인지, 가치 및 태도, 행위 측면에서 다양하게 드러났다(표 9). 먼저 이들은 인간-동물-지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진술문 12). 그러나 돌고래가 고통받는 문제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다른 유형보다 특히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고(진술문 17), 다른 유형에 비해 소고기를 먹는 것이 동물의 삶의 터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진술문 23). 동물의 행위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인간의 행위성이 동물의 삶터, 곧 지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어린이는 인간-동물의 관계를 다소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인간중심적인 환경

표 9. 유형 3의 강한 동의/비동의 진술문(z-score≥±1)

| 번호 | 동의 진술문 | z-score |
|---|---|---|
| 35 |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2.03 |
| 12 | 인간, 동물, 지구는 모든 분야에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끼친다. | 1.72 |
| 19 | 길고양이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이다. | 1.49 |
| 18 | 문제에 처한 동물을 돕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 중요하다. | 1.28 |
| 20 | 고라니가 차도에 뛰어들어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사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 1.09 |
| 34 | 도시는 인간과 많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 1.04 |
| 번호 | 비동의 진술문 | z-score |
| 1 | 도시의 길고양이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 -1.17 |
| 7 |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이다. | -1.66 |
| 29 | 소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동물일 뿐이다. | -1.73 |
| 31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므로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1.87 |
| 23 | 나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소고기, 우유, 유제품 등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2.31 |

www.kci.go.kr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유형보다 사람의 생명이 고라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데 더 강하게 동의하는(진술문 2) 등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친숙한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과 함께 사는 존재라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을 보면 길고양이를 도시의 이웃으로 여긴다거나(진술문 19), 문제에 처한 동물을 돕는 것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같이 여긴다(진술문 18)는 데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

이 유형은 동물 문제에 대한 행동 의지가 특정 동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라니에 대한 대처 행동 의지는 약하였지만(진술문 20),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기와 같은 돌봄 행동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진술문 31). 이처럼 애정을 가진 동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가치 판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테면 소가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동물일 뿐이라는데 비동의(진술문 29)하며 동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후 위기 때문에 소고기와 우유 및 유제품 등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키가 커야 한다'라는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대하였다(진술문 23). 후속 면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애정과 관심을 쏟거나, 자신만의 개인 신상에 초점을 두는 유아적 자기중심성이 잔존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추론할 수 있다.

### 4) 유형 4: 연민 기반 생명존중형

유형 4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동물에 대한 강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를 모두 인간과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윤리적 의식이 강했다. 인간이 동물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동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동물을 돌보려는 실천 의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인간-동물-지구 환경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동물과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연민 기반 생명존중형'으로 유형 4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표 10과 같은 진술문에 대한 반응과 후속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유형 4의 인식을 가진 어린이는 동물에 대한 강한 연민을 바탕으로 동물 문제에 대해 가치 판단하거나 행위를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에게는 생명중심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인간-동물-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적 인식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유형 4의 어린이는 인지적 측면에서 동물 문제가 다중스케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진술문 35). 도시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곳(진술문 34)이라면서 특히 도시에 해당하는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 유형의 어린이도 지역 스케일 단위의 동

표 10. 유형 4의 강한 동의/비동의 진술문(z-score≥±1)

| 번호 | 동의 진술문 | z-score |
|---|---|---|
| 19 | 길고양이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이다. | 1.83 |
| 8 |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야생동물이 서식지로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든 육교나 터널)를 만들어야 한다. | 1.49 |
| 35 |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1.48 |
| 34 | 도시는 인간과 많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 1.27 |
| 13 | 길고양이가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길에서 사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1.24 |
| 24 | 나는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할 것이다. | 1.04 |
| 번호 | 비동의 진술문 | z-score |
| 27 | 박쥐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 -1.16 |
| 1 | 도시의 길고양이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 -1.32 |
| 2 | 고라니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고 할 수 없다. | -1.33 |
| 31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므로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1.52 |
| 33 | 내가 어릴 때보다 동물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진 않다. | -1.64 |
| 7 |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이다. | -2.34 |

www.kci.go.kr

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동물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직접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이 고라니를 위한 생태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강하게 동의하는 데서도 드러난다(진술문 8).

가치·태도 측면에서 길고양이, 박쥐 등 동물에 대해 강한 연민을 드러냈다. 특히 길고양이를 도구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진술문 7). 또한 이들에게는 생명중심적인 환경윤리의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고라니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위에 두는 진술문에 반대하는 반응(진술문 2)이나 후속 면담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한편 길고양이와 공존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 유형의 어린이는 실제 도시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길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진술문 19).

이 어린이들은 동물에 대한 강한 연민을 느끼고 있으며 돌봄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며(진술문 31), 동물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다(진술문 24). 한편 후속 면담에서 유형 4의 어린이는 동물 문제 원인에 대하여 인간-동물-지구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기는 하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동물 문제가 인간 생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 진술문 10번과 사람의 생활방식이 동물의 삶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진술문 17번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유형 4의 어린이는 돌고래 수족관이나 공연장 폐지,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한 소고기 섭취 중단하는 것과 같이 인간과 동물,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과 행동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 Ⅳ. 동물 문제에 관한 어린이 인식의 초등지리교육적 시사점

### 1. 공통된 인식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

먼저 모든 인식 유형의 어린이가 공통으로 동의한 진술문에서 초등지리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모든 어린이는 진술문 35번 '동물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세계적·다중스케일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동물 문제의 이러한 특성을 대체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이 어린이와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Malone, 2016a; 2016b; 2017; Myers, Jr. and Sanders,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측면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동물 문제가 주로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졌던 것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동물 문제를 접할 기회나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특성을 고려할 때, 동물 문제를 환경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스케일적인 지리 인식, 태도만 아니라 환경·경제·사회 등의 분야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내용에 이러한 동물 문제가 반영되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참여 어린이는 '고라니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만들어야 한다(진술문 8)'에도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고라니의 로드킬과 같이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동물 문제를 관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자신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동물 문제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인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생태네트워크 내 한 행위자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가 동물을 생활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물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적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도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진술문 34)'에 동의하고 있었다. 어린이는 자신의 삶터인 도시를 동물과 함께 사는 곳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인식은 지

www.kci.go.kr

리 교과서가 동물의 공간을 학습자와 동떨어진 영역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윤창호, 2021; Cho *et al*., 2022)와 차이가 있다. 즉 어린이는 교과서에 재현된 어른의 관점으로 동물의 공간을 이해하진 않는다. 이제껏 도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이 분리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린이가 생각하는 도시는 어른에 의해 재현된 경관과는 다르다. 어른에게 도시는 비인간이 배제된 곳, 회색 도시, 교통·범죄·주택·환경 문제 등이 많이 일어나는 홈 패인 공간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도시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사는 생동적 공간이자 매끄러운 공간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지리교육이 어린이 학습자가 삶터에서 비인간 동물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수업에서 어린이가 자신의 살아가는 삶터에서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기 위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현될 수 있다.

## 2. 유형별 인식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

어린이의 인식 유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지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유형 1) 어린이는 동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문제의식을 내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구분 선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나 실천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 또한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 어린이는 동물을 인간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인간의 생활 영역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구별한다. 어린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교육이 어린이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지리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어린이가 동물 문제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가치 판단과 실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 학습자를 고려하여 동물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과 실제 동물 문제에 대해 어린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보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어린이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현된 인간-비인간의 이항 대립적 관점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학습자가 인간-비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인간-비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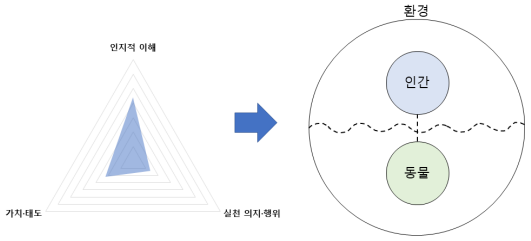


그림 2. (유형1)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의 동물 문제 및 인간–동물의 관계 인식

다음으로 생태 기반 공존지향형(유형 2)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균형 잡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실천 방법을 알고 행하지는 못하나 동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생태적 네트워크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행위성을 발휘하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어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서 다양한 생태계 지식을 학습하고, 형식적·추상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동물에 대한 정서적 교감의 단계를 넘어서 인간과 동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인식은 동물을 사회적 행위자로 존중하며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추구하는 데 전제가 된다. 연구 결과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인식을 가진 어린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그동안 비인간을 철저히 객체로 다루었던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지위를 대등

www.kci.go.kr

한 행위자로 다루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려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을 가진 어린이는 그 특성상 동물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실천 의지를 보이는 행동이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가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활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적 실천 행동, 일상적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행동, 사회적 참여 행동 등을 다양하게 배우고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실행해보는 실제적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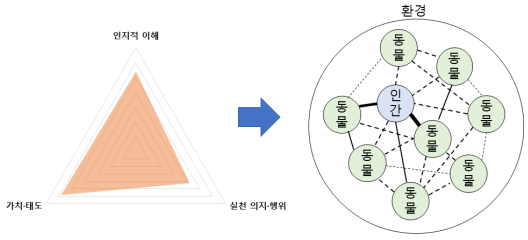


그림 3. (유형2)생태 기반 공존지향형의 동물 문제 및 인간–동물의 관계 인식

한편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유형 3) 어린이는 동물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동물을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존재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인지적 이해 수준과 동물 문제에 대한 실천 의지·행위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의 행위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인간의 행위성이 동물들의 삶터를 변화시킨다는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의 어린이는 동물의 권리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는 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보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우선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어린이는 대체로 동물 문제를 인식할 때 관련된 다양한 사실과 정보를 고려하기보다 관심사나 호감도에 따라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대우도 달라진다(그림 4). 동물 문제가 다양한 스케일이나 다중스케일적으로 발생·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나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동물 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문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이러한 어린이가 동물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첫째, 지리교육이 다양한 스케일의 영역에서 동물 문제를 내용 소재로 활용하여 연관된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지상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물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인식하는 지리적 영역의 범위가 로컬, 국가, 세계 수준으로 점차 확장될 때마다 그러한 스케일에 맞게 동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해 어린이가 가진 애정과 관심이 지리적 인식 영역의 확장과 함께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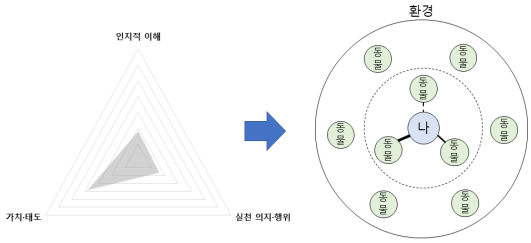


그림 4. (유형3)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의 동물 문제 및 인간–동물의 관계 인식

끝으로 연민 기반 생명존중형(유형 4)은 동물 문제를 개선하려는 적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은 네 가지 인식 유형 중 실천 의지·행위 측면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비해 인지적 이해 측면의 인식 수준이 약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의 어린이는 인간-동물-지구 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물 문제 중 전시/공연 돌고래 문제나 소고기 문제와 같이 인간의 생활 전반과 동물,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동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www.kci.go.kr

의지를 보이는 데는 인간과 동물을 돌봄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어린이의 인식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모든 동물은 생명을 가진 동등한 존재이고 인간은 연민의 마음으로 그러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 유형을 가진 어린이들은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을 돌보려는 신체적 행동의 실천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돌봄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스케일의 동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이다. 돌봄을 통해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인간과 삶터를 공유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동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동물 문제가 자기 삶과 주변 환경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유형 4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생명중심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강한 돌봄 의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동물 문제를 전부 돌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동물 문제에 대응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가진 동물에 대한 연민의 감응이 돌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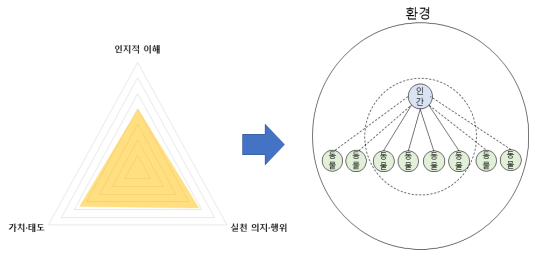


그림 5. (유형4)연민 기반 생명존중형의 동물 문제 및 인간–동물의 관계 인식

## V. 결론

어린이에게 동물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자 다양한 정서를 교류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곤 한다. 또한 동물은 어린이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물은 어린이의 삶에 가장 가까운 비인간으로서 존재하기에, 동물 문제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초등지리교육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이용해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 자료와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해 길고양이 문제, 고라니 로드킬 문제, 전시/공연용 돌고래 문제, 박쥐와 코로나19 문제, 먹거리 소와 공장식축산 문제에 관한 Q모집단(진술문 508개)을 구성하였다. 이어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을 포함한 4차례 분류 과정을 거쳐 총 35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지역,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등이 다양한 초등학교 5~6학년 34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여 Q소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물을 QUANL 프로그램으로 요인분석하여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대표자들과 진행한 후속 면담 자료를 종합하여 유형별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양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간중심적 경계짓기형 어린이는 인간과 동물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보며, 동물 문제에 관련한 판단을 하는 데 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손익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자신을 동물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동물 문제에 대한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미약하였다. 다음으로 생태 기반 공존지향형 어린이는 동물의 생명과 그 생태적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행위자이자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동물 문제가 인간과 동물의 복잡한 생태적 연결망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중심적 차등대우형 어린이는 동물에 대한 애정과 선호도에 따라 일부 동물에 배타적이었고, 동물에 따라 동물 문제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어린이는 자기 자신의 이해(利害)를 가장 우선시하며,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는 동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끝으로 연민 기반 생명존중형 어린이는 동물에 대한 강한 연민을 느끼고 인간이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있었다. 이 유형의 어린이는 동물 문제를 둘러싼 인간-동물-지구 환경의 긴밀한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하나 동물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문제에 처한 동물을 돌보려는 실천 의지가 컸다.

이처럼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양상은 다양하며 인

www.kci.go.kr

식 유형별로 인지적 이해, 가치·태도, 실천 의지·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모든 어린이는 동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네 유형의 어린이는 동물 문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다중스케일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동물의 사활이 좌우되는 문제에서 인간이 유의미한 행위자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어린이들은 자신의 삶터가 동물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인식은 초등지리교육이 인간 너머 지리교육으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모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초등지리교육은 다양한 스케일의 동물 문제와 그 환경·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우리 삶에 연관됨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동물 문제를 둘러싼 생태네트워크를 인식하는 관계적 사고를 기르고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한 실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교수·학습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가 삶터에서 비재현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삶터의 경관과 동물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술문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기에 어린이의 비재현적 인식과 정서적 감응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5~6학년 어린이로 제한하였고, 연구 내용의 범위를 다양한 비인간 중 일부 동물에 관련한 문제로 한정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어린이나 모든 동물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특정한 동물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러한 동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어린이들의 감응, 말과 행동 등 수행적 측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을 확인하고 양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

1) "교육적 행동, 설득적 행동, 신체적 행동, 경제적 행동"의 4개 영역에 관련한 행동이다(하경환, 2006: 21).

2) 동물 문제 선정 과정에서 로컬스케일은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범위로 간주하였다(주은정, 2016: 223). 한편 동물 문제는 연구참여자에 따라서 그 스케일이 달라지거나 다중스케일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본 연구는 도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벌집군집붕괴현상이 지구스케일의 문제가 되지만, 양봉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는 어린이에게 벌집군집붕괴현상은 로컬스케일이자 다중스케일적 문제일 것이다.

3) 동물 학대나 동물복지, 윤리적 소비 문제는 공간적 차원의 문제라고 한정할 수 없으나 일상 공간에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 및 환경 인식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지리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통해 참여자가 가진 문제 인식과 실제 일상적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전시/공연 돌고래 문제, 먹거리 소와 공장식축산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동물 문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지에 관련 문항을 함께 기재하여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강원국·김옥진, 2020, "동물매개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6), 2753-2767.

강주연, 2022, 동화를 활용한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고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두경·김윤주·송지희, 2020, "외상경험아동의 동물매개치료효과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21, 11(4), 859-874.

김병연·조철기, 2020, "사회-자연 이분법을 넘어선 도시 이해를 위한 '인간-너머의' 지리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436-448.

김병연·조철기, 2021, "도시, 길고양이, 우리(나): 학교지리에서 포토보이스의 가치 탐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1), 108-124.

김선희, 2023, 어린이의 동물 문제 인식 분석을 통한 인간 너머 지리교육의 방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은, 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4), 461-477.

김양순, 2005,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 보조 놀이치료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6(2), 485-497.


www.kci.go.kr

김원·마영남·신학진, 2013, “우울, 불안, 분노 성향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대한 동물매개중재 프로그램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45-271.

김준수, 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공간과 사회, 28(1), 55-100.

김헌수·원유미, 2000, Q방법론, 교육과학사.

김홍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순열, 2010, “한국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인식 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ECO, 14(2), 7-52.

박현아, 2019, “반려견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1091-1107.

심혜미·우주영, 2020, “동물매개놀이치료가 위험회피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치료도우미견의 역동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6(2), 353-378.

오가영·강원국, 2021, “치료도우미견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농촌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3(7), 731-750.

윤창호, 2021, 인간 너머 지리교육을 위한 토대 연구: 동물의 지리교육적 가치 및 수업 방법 모색,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룡·이현진·남상준, 2021, “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관한 초등학생의 인식: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133-153.

이시종·김옥진, 2021, “동물매개중재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뇌기능 지수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55(4), 223-251.

이시종·유지현·김옥진, 2019,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동물매개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가정과삶의질 연구, 37(1), 143-162.

이준철, 2022, 동물매개치료가 아동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혁재, 2017,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따른 도시 공공 공간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소영, 2017,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인식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의령, 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회, 50(3), 3-40.

전희락·남궁영, 2022, “유권자에 대한 Q방법론적 유형 연구”, 주관성연구, 59, 93-117.

정여름, 2019, 유기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교육(AA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수·오가영, 2015, “동물매개활동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5(1), 1-18.

조철기, 2018, “동물지리와 지리교육의 관계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2), 81-89.

주은정, 2016,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지리 스케일에 따른 환경문제 및 미래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환경교육, 29(2), 220-232.

채유정, 2018, 먹거리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두혁, 2016, AAA(동물매개활동)를 이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애, 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28(1), 16-54.

최명애, 2020, “비인간 행위성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문화역사지리, 32(1), 126-145.

하경환, 2006, 초등학생의 동물에 대한 태도와 환경친화적 행동의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선미, 2011, 동물 보호 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태, 2018,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공간과 사회, 28(1), 5-15.

황진태·전민성·서성훈·유동현·최다훈, 2019, “발전주의적 코스모폴리틱스로서 동물카페”, 문화역사지리, 31(3), 61-78.

홍서영, 2020, “Q방법론을 활용한 초등학생들의 환경 인식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8(2), 139-154.

홍주연·윤지현, 2009, “말을 이용한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놀이치료연구, 13(3), 99-111.

Buller, H., 2013, “Animal geographies 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2), 308-318.

Cho, C. K., Kim, B. Y. and Stoltman, J. , 2022, “Animal identity

www.kci.go.kr

and space as represented in South Korean geography textbook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31(1), 53-68.

Choi, M. A., 2016,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대한지리학회지, 51(5), 613-632.

Malone, K., 2016a, "Reconsidering Children's Encounters With Nature and Place Using Posthumanism",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1), 42–56.

Malone, K., 2016b, "Posthumanist Approaches to Theorizing Children's Human-Nature Relations", *Space, Place, and Environment*, 185-206.

Malone, K., 2017, *Children in the Anthropocene: Rethinking Sustainability and Child Friendliness in Cities*. Springer.

Morrow, V., 1998, "My Animals and Other Family: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ir Relationships with Companion Animals", *Anthrozoös*, 11(4), 218-226.

Myers Jr, O. and Saunders, C., 2002, Animals as Links toward Developing Caring Relationships with the Natural World in Khan H. Jr, and Kellert, S. R. (Eds.), *Children and Nature*(pp.153-178), the MIT Press.

Robin, M. and Ten, B., 1985, Pets and the sociedization of children, In *Pets and the Family*(pp.63-78), ed. M.B. Sussman, Haworth Press.

Wolch, J., 2002, "Anima urbi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 721-742.

접 수 일 : 2023. 05. 01
수 정 일 : 2023. 05. 21
게재확정일 : 2023. 05. 21

교신: 김혜진,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hjkim@knue.ac.kr, 043-230-3470)
Correspondence: Hye-Jin Kim, hjkim@knue.ac.kr

www.kci.go.kr